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사랑하는 교구민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젊은이와 함께'라는 사목 목표로 시작한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표는 생각에만 머물고 여전히 지난 시간과 같은 관성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선교'라는 부분, 더욱이 '해외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오늘 신앙과 관련 없이 생활한다면 '교회는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복음의 기쁨 24)'라는 본질과 떨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교구는 지금까지 84명의 선교 사제를 파견하여 만민 복음화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도 22명의 사제가 해외에서 선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노드의 정신을 친교, 참여, 사명으로 구체적으로 살도록 초대받은 우리는 '선교 사명'이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맡겨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에서는 '젊은이 선교 체험', '선교사 인재 은행', '평생 선교사 양성' 등을 준비하여 교구의 평신도들도 해외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여 선교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직접 함께하기 힘든 분들도 그 자리의 소식을 듣고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며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구의 해외선교후원회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9년 반 동안 봉쇄수녀원의 수도자로 살며 봉쇄 울타리를 넘어본 적조차 없지만, '평생 세상 끝날까지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며 편지와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과 함께했고, 선교의 후보 성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향유 내음에 이끌리어 모든 영혼이 뒤따르게 된다'(교황권고 '사랑으로 이끄는 신뢰' 10)라는 선교에 대한 데레사 성녀의 이해는, 먼 곳으로 떠나지 못한 우리에게도 성녀가 선택했던 것과 같은 '작은 길'을 통해 선교의 순례를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교구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품은 우리 삶의 '작은 길'을 통해 만민을 주님께 이끄는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걸음에, 성모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선교 순례의 여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
(Deus Pater Mater Ecclesia)

대만에서 만난 하느님의 선물



김재원 베드로 사별 신부
대만 신주교구

+ 찬미예수님

2017년 파견되어 대만에서 8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사제 생활의 절반을 대만에서 보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목한 기간보다 대만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지며 한쪽에서는 점점 잊혀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저에게 매 순간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던 시기에는 이 언어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성령께 기도드렸고, 본당 사제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맡겨진 본당 공동체의 화합과 냉담자들의 회심을 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어느덧 매일 이곳의 언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복음을 낭독하고, 강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년 돌아오는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새 신자 영세식을 거행하며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어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대만은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톨릭 인구는 1% 수준인 데다 신자는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또한, 현지인 성소자가 드물어서, 대부분 외국인 사제, 수도자들이 선교사로 들어와 사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교회는 비록 작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신자들을 만나고 사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기에, 제게는 특별한 은총의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의 해외 선교 사제들은, 교구 사제이지만 선교사로서 세계의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교회를 돕고 함께 연대하는 것도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는 파견된 사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도 은총이 됩니다. 물질 후원뿐 아니라 선교 사제들을 위한 영적 후원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혹시라도 저를 기억하는 교우분이 계시다면 화살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다시 걷는 길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페루 푸에르토말도나도대목구



저는 페루 리마 북쪽 지역에서 골롬반 선교회 협력 사제로 6년간 사목한 뒤, 페루 남동쪽 푸에르토말도나도 대목구의 '마수코'에서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네요.

같은 페루에 있지만, 이곳의 문화와 환경이 리마와 달라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당 안의 여러 공동체를 찾아다니며 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저 역시 이곳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사목하는 대목구에서 올해 1월 초 예비성소자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14명이 참석했고, 저는 제 성소 여정과 사제로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아마존 교회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넓은 지역에 비해 사제가 극히 부족하고 성소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있지만, 식별과 양성의 여건은 아직 충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교님과 사제들, 신자들은 기도와 인내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떠올려봅니다. 리마에서 사목하던 시절, 서울대교구의 도움으로 매우 열악했던 공소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연대 덕분에 공간이 다시 세워졌고, 그 감사의 마음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은 선교가 결코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바쳐 주신 기도는 선교지 모든 해외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저 또한 사제로서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교회와 이곳의 젊은이들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은 이곳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든든한 희망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 또한 아마존에서 서울대교구의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일시	2월 20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파견 사제	이준 바오로 신부(프랑스)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중국) 이한별 도미니코 신부(일본)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3월 5일(목) 오후 2시 (매월 첫 목요일)
장소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집전	김동원 베드로 국장신부 유동철 리노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선교사 인재 은행



지원 신청 QR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에서는 국내에서 모집·선발·양성 과정을 거쳐 팀을 구성하고, 선교지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 인재 은행'을 운영하여, 선교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평신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전문성과 재능은 선교지에서 큰 희망이 됩니다.

모집분야

교육 | 의료 | 건축 | 농업 | 식품·영양 | 이미용 | 제빵 | 음악 | 미술 | 심리 등



젊은이 선교 체험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선교 사명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평신도 선교사 양성과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젊은이들이 선교의 기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젊은이 선교 체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세상과 만나는 **선교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청년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4월 소식지와 주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COMING SOON!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미사·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 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후원계좌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_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후원 방법 (1, 2 중 택일)

1.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2.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문의

02) 727-2407, 2409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 신청 QR